

국가를 넘어 아시아 상생의 길 찾는다

조선대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학술 교류·대외협력사업 펼쳐
日원아시아재단 18강좌 진행

아시아의 정체성과 공동체 실현 방안을 탐구할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조선대학교는 4일 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전략, 비전 등을 탐구하고, 전문인재 양성, 학술 교류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Asian Community Research Center)'를 설립, 지난 31일 경상대학 7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아시아의 지역주의·인종주의·국가주의 등 사회·경제·문화·인종·물리적 장벽을 넘어 서로의 공통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인문학적 기초를 탐구한다.

또 미래 아시아 지역 대학생들에게 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전략과 비전 등을 교수·학생이 함께 연구하는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제 학술 교류·대외협력 교류 사업도 펼친다.

특히, 조선대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는 일본 원아시아재단(One Asia Foundation·이사장 사토요지)의 '2014 아시아공동체론 강좌 개설 지원대학'으로 선정, 2학기 때



지난 31일 조선대 경상대학 7층에서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부터 '아시아공동체론'(책임교수 한상욱)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아시아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해당 전공 교수 20여명이 매주 3시간씩 15주간 18강좌를 진행한다.

원아시아재단은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난 2009년 설립한 순수 민간 연구 지원 단체다. 대학 강좌, 제도의 전문적 연구, 장학금, 학술·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지원한다.

현재 일본 67개 대학, 중국 56개 대학, 한국 47개 대학 등 아시아 36개국 295개 대학에 아시아공동체론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개소식은 지난 31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 이청호 경상대학장과 황병하 아랍어과 교수, 이철승 철학과 교수, 한상원 동아에스텍(주) 대표이사, 박인선(주)반도메디스 대표이사, 강행욱 변호사, 정동호 뉴발란스

대표, 윤성명 블랙야크 대표, 박순갑 태강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의천 센터장(경영대학원장)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가 지역 공동체를 구성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일궈 세계 평화와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며 "미래 지역 대학생들이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복 먼바다서 키운다”

전남대 김태호 교수팀, 세계최초 개발

다층 구조로 수중에 설치
태풍·파도·적조에 강해

주로 연안에서 이뤄지는 전복 양식을 조류 소용돌이 양호하고 수질이 깨끗한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중 가두리 시스템이 전남대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해양기술학부 김태호 교수는 외해의 수중에서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복·해삼 등 수산 무척추 동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다층 구조의 수중 가두리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가두리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결과는 'IEEE Oceanic Engineering(아이 트리플이 해양공학)'과 'Aquacultural Engineering(양식공학)'에, 전복과 해삼의 복합 양식 기술 개발 관련 연구 결과는 'Aquaculture(양식)' 등 국제 학술

지에 잇달아 게재됐다. 또 관련 분야의 원천 기술 4건의 특허 등록도 마쳤다. 연안 전복 가두리의 경우 같은 어장에서 매년 양식을 하는 연작과 밀식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폐사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가두리 시설이 파도에 약해 태풍에 의한 시설물 파괴, 전복 폐사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전복 가두리 시설의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질이 깨끗한 먼바다로 나가 파도와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수중에서 전복 등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수중 가두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 개발에는 민간기업인 대복수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가두리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수중에 설치되어 있다가 전복 종패 입식과 선별 및 먹이 공급 등 필요시에만 간단한 압축 공기 조정 장치를 사용해 수면 위로 올려 작업을 한 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내려지는 방식이다. /*채희중기자 chae@

조선대, 전라·충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

문체부 주관...인재 발굴·양성
16일까지 교육생 40명 모집

조선대학교(총장 이재홍)가 정부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전라·충청지역 스포츠산업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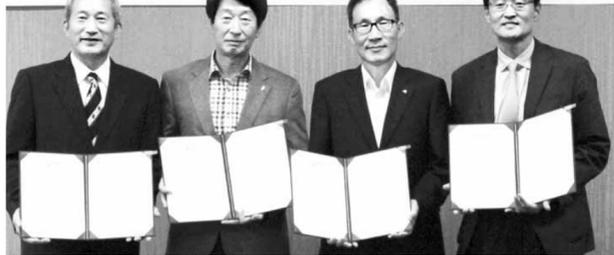
조선대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전라·충청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지역은 경희대가, 경상·제주지역은 계명대가 맡게 됐다.

스포츠개발원은 이들 3개 대학과 지난 31일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협약을 맺었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스포츠개발원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스포츠 융합기업, 스포츠 협동조합, 스포츠 사회적기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산업 창업자를 발굴, 인재를 양성한다.

센터는 오는 16일까지 스포츠산업 창업 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1단계(8~9월)로 스포츠산업의 주요 현황과 창

“본사업은 체육진흥특례권 적립금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조선대는 지난 31일 한국스포츠개발원 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지원 협약식을 했다.

업 계획, 실무 등을 진행하고, 2단계(10~11월)로 스포츠산업 시장 환경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영 전략, 스포츠와 IT 융합이 가져오는 미래 스포츠 산업, ICT 융합형 스포츠 산업의 전망 등을 다룬다.

센터는 그룹별 전담 멘토를 지정해 창업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1대1 멘담을 통한 맞춤형 창업 지원은 조선대의 특

징이다. 교육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2015년 보육대상자를 선정해 보육사업을 지원한다.

교육 희망자는 조선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4022sem@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조선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062-230-7427, 010-3615-402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여대 미술치료학과 행복 나눔 캠프 개최

장애아동에 미술치료 재능기부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미술치료학과와 미술치료센터는 최근 이를 동안 '행복한 세상과 마음나누기'라는 주제로 제5회 광주여대 행복나눔 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광주여대 미술치료학과가 지역사회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가 존중받고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나의 삶의 가치'의 소중함과 '긍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후원으로 장애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주여대 예술치료대학원 재학생과 미술치료학과 교수가 도예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승덕고 사제동행 국토순례 '호응'

학생30명·교사2명 영월 탐방

“국토순례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동을, 이기심보다는 배려를 배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승덕고등학교(교장 직무대행 윤세웅)의 사제동행 국토순례가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국토순례는 올해 3회째로 1학년 학생 30명과 교사 2명이 지난 31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영월군 일대를 탐사했다. (사진) 국토순례는 단순 여행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하는 '국토 배움 나들이'를 통

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보고 듣고느낌으로써 상상한 지식을 얻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승덕고는 국토순례뿐만 아니라 단종의 장릉·청령포 유배지·제천 의림지·충주 탄금대·충원 고구려비를 탐방하는 역사문화 테마여행도 진행했다. 또 지질여행 테마에서는 한반도 지형·석회 동굴(백룡동굴)·선돌·지리 박물관·독도 특강을, 지역문화 테마에서는 동강 사진 박물관·탄강 문화촌을 탐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음식물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주)편한세상은 분쇄 후 2차미생물 분해 소멸방식으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되는 유일한 합법제품으로 100% 국산 친환경제품입니다. - 올바른 제품 선택만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입니다. -
- **환경부 (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환경부인증(2013-91호)은 물론 KC인증과 전자파인증까지 받은 가장 이상적인 합법제품입니다. - 환경부 및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 **KBS 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이미 KBS 등 방송3사 뉴스에서 검증 보도된 합법제품입니다.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주)편한세상은 작은 소음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처리시간 30초 이내로 아주 낮은 전기료(월 500원 미만)와 자체 세척기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주)편한세상은 AC모터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국 어디든 이진설치에도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주)편한세상은 그동안 주방에 모자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세균, 냄새, 벌레, 귀찮고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 함으로써 가정주방의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문의 061) 245-2457 전국 설치가능